

野 “손혜원 특검·국조 하자” 전선 확대



2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 등이 목포시 역사문화거리를 찾아 창성장 등 주변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한국당, TF 이어 목포 방문…평화당 “법 위반 소지” 문체위 전체회의서도 성토…손혜원-금태섭 SNS 설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이 탈당한 만큼 22일에도 무대응 전략을 고수했지만 야권은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 추진에 공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손 의원에 대한 민주당 의원 일부의 비판까지 나오면서 전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특히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이어 이날 오후 진상 파악을 위해 의혹의 대상지역인 목포를 방문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도 압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문화사랑 때문에 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회의에서 “여의도에 정치개혁 등 풀리지 않는 과제가 쌓였는데 갑자기 손혜원 폭풍이 불었다”며 “민주당은 사과와 재발 방지보다 손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고 탈당 회견에 원내대표가 둘러리를 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하당 정동영 대표도 YTN 라디오에서 “손 의원이 출발은 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물의를 빚었고 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검찰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긴급 소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손 의원과 민주당을 일제히 성토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 3당의 요구로 열렸으며, 여당인 민주당은 불참했다. 민주당 탈당에 이어 전날 문제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손 의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도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재숙 문화재청장 등 관련 기관장 출석 없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전행발언만으로 20여분 열렸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손혜원 의원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무후무한 의혹을 일으켜 안타깝다”며 “상임위에 정부 부처가 불참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손 의원 관련 의혹을 일일이 열거한 뒤 “상당수 의혹은 문제위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이미 보도된 내용만 봐도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목포가 고향인 한국당 조준현 의원도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위장 탈당한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방한 국회”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간사는 “손 의원에 대해 안타깝지만, 의혹은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안민석 문제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문제위가 이렇게 진상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충돌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전날 금 의원의 한 방송 인터뷰에 대해 반박했다. 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고 그대로 인용한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말까지 기다리겠다”며 “자초지종 다시 알아보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야 “민주 선거제 개혁안은 가짜 연동형 비례제”

“지역구 200석으로 줄이는 것 실현 불가능”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내놓은 ‘의원정수 유지·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2대1’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면피용 협상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야 3당은 동시에, 명확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무늬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자,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

는 “(민주당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면피용 안을 내놓았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비껴가는 안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를 줄이는 것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맞박았다. 여기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협상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 협상안을 다뤘으나,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안에 대해 야 3당 뿐 아니라 한국당까지 “현실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정개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당정청 “국민 체감할 성과 내자”

올 첫 회의…이해찬 “민생안정 최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야당과의 협치, 대국민 정책홍보 강화 등을 통해 문제인정부 3년 차 개혁 동력을 이어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이내 정부를 향해 주문을 쏟아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당 대표로서

“중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당정청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며 “한 달에 한번은 꼭 할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여권 전체의 ‘검허한 자세’를 요구하

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법에 따라 대처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며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3가지 대응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가 잇따라 나온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더 겸허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이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야권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여권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자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총리의 이번 언급은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나온 것일 뿐 아니라 이 총리가 평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작심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또 이 총리는 “저를 포함해 장·차관급까지 설 명절 이전에 현장방문을 200회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면서 현장 행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3·1운동 100주년’ 띄우기

기념특위 출범…3·1혁명사 남북 공동연구 등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2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100주년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특위 사업 방향 등을 공개했다. 특위는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강창일·유원식·권철승·김정우·박경미·박주민·소병훈·전재수 의원 등 2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서 “3·1운동은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뀐 큰 가치의 전환이자 국가 기본의 전환”이라며 “한반도 모든 곳의 국민이 만세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새로운 100년을 민주당이 앞장서 열겠다. 특히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

도에 기적같이 찾아온 평화를 반드시 율하는 안착시킬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특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특위는 기존의 ‘3·1운동’ 명칭을 ‘3·1혁명’으로 변경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사의 역사용어 정명(正名)에 나서고, 독립운동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병운동과 3·1 혁명사를 남북 공동으로 연구·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당 차원에서 남북 민간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남북이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제’ 한글폰트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특위 출범식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주당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인사들도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택을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무안읍 원룸·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주인 교통좋은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해제면 소재지 상업지 1036㎡ 은행 2억4천 매도 1억 교환가능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땅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화성동 건물 대지 388㎡ 건물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10억
- 용봉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830㎡ 은행5억 매도 8억5천 조정가능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점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화순 농주면 면소재지 대지 588㎡ 3층건물 431㎡ 은행 1억 매도 1억2천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대인을 1213㎡ 김장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4억3천에 매도함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단독

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